

광주형 그린뉴딜 대표 주자 '수소 시내버스' 도심 누빈다

21일부터 6개 노선 6대 투입 전기·수소버스 총 43대 운행 2022년까지 수소생산기지 구축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의 대표 주자인 친환경 수소버스 6대가 시민의 발이 돼 광주 도심을 누빈다. 광주시는 21일 벽진 수소충전소에서 이용섭 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임동춘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버스 시승식을 했다. 시승식은 벽진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스를 시범주행하고 광주시청까지 탑승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시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수소버스인 순환01번을 타고 시청까지 이동하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코로나19 극복 등

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소버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기를 차량 내로 끌어들이고 산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발생한 전기를 연료로 운행한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환경부의 수소버스 시범사업 도시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시내버스 충전이 가능한 벽진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갔다.

수소버스 운행노선은 충전소 접근성과 다양한 노선 운행 원칙에 따라 6개 노선으로 정해졌으며, 순환01번(세하동-세하동), 송정19번(도산동-장동), 일곡28번(매월동-삼례시외), 금호36번(장동동-서광주역), 금호46번(국립광주과학관-서광주역), 운림51번(첨단-증심사) 노선에 각 1대씩 운행한다.

광주시는 내년엔 버스 충전이 가능한 월출 충전소와 장등 충전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수소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 수소 시내버스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광주시는 현재 수소버스 6대를 포함해 전기 및 수소버스 43대를 운행하고 있다. 수소버스 1대당 대기오염물질 정화용량은 연간 공기량 42만kg이며, 이는 성인 약 86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양이다.

수소버스는 에너지 효율이 80% 이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연료의 40%보다 월등한 효율을 보인다. 1회 30kg 충전으로 최대 45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수소버스 운행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이라며 "자전거 정책, 물순환 정책 등 생활 속 그린뉴딜 정책이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순수성' 의심

5분 발언 기회 제지 등 문제 삼아 비주류 의원 등 15명 발의 동참

전남도의회 의원 일부가 김한중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낙선 의원 등 비주류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5분 발언 기회 제지 등을 문제 삼아 자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 발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순천2-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한중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18일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전체 의원 57명 중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의원 1명 등 총 1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 의장이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을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부당성, 민간공원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발언 기회 차단 등을 불신임 이유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르면 불신임결의는 재

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의원은 민주당 52명·정의당 2명·민생당 1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1992년 당시 민주당 전남도지부 조직개편을 두고 의장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됐다가 부결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축이 돼 자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대체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낙선자 등 비주류 의원들이 가세했다는 것이 불신임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의정 혼란기가 도를 넘어섰다. 불신임의 이유로 든 사례 자체가 경미해 논할 가치도 없다. 의원들이 이제라도 지방 회의를 회화화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의 민주당 의원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불신임안 발의 의원 일부는 수개월 전부터 '기만하지 않겠다. 시끄럽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던 분들이다.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을 경미한 사안으로 흔들어서 안 된다"고 했다. 김한중 의장은 "저의 부덕 때문이다.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코리아 토틸관광 패키지(KTTP) 민관 협의체 발족식에서 KT, 제주항공,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마트 관광플랫폼 구축, 전남관광 및 안전관광 활성화 국내외 홍보, 국내외 관광객 체감형 선도모델 개발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글로벌관광지 재도약 '민관협의체' 발족

전남도는 2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철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형 관광을 위한 코리아 토틸관광 패키지(KTTP)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 현업 종사자와 유관기관·단체장, 대학 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실무진 32명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사업을

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전남도는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KT, 제주항공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과 전남관광 및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내외 홍보, 지역연결형관광 실현 콘텐츠 개발, 관광객 체감형 선도모델 개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코리아 토틸관광 패키지 사업으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전남도를 글로벌관광지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협약 기관을 비롯한 민관 협의체 참여 기관들이 전남관광의 비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코로나 감염병 예방 해냄이·해맞이 행사 모두 취소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해냄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해냄이·해맞이 행사가 열렸으나 전라남도는 연말과 새해 인파가 몰릴 주요 명소들을 대상으로 출입 통제 및 방역요원 배치 등 조치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고 해맞이 명소 중 한 곳인 여수 향일암의 일출제를 비롯 순천 와은 해넘이 행사, 나주 정수루 북두드림제야행사, 고흥 남일 해맞이 행사,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 무안 도리포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소방, 최신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띄운다

230억 들여...2022년 실전배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복합적이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30억원 규모의 최신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3년간 운용해 온 소방헬기 1대를 최신형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로 교체해 2022년 실전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소방헬기는 1997년 도입된 기종(BK117B-2)으로 ▲2시간 40분의 짧은 항속시간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이송 시 연료 탑재량 부족 ▲산불진화에 비효율적인 적은 담수용량(670 l) ▲안전장치 및 자동비행 등 최신 성능 부재로 항공 임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광주시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공 안전법' 준수와 '소방청 소방헬기 기본규격'을 기준으로 구매절차를 진행했으며, 구조 임무적 합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최신 기종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의 AW-139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도입하는 소방헬기는 ▲주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동비행장치 및 야간투시경(NVG) 장치 탑재 ▲우리나라 전역 전자 지도 ▲전방 시야 확보 장비(EVS) ▲자상 충돌 경보 장비(EGPWS) ▲공중충돌 경고 장비(TCASII)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인접 시·도에서 수도권 주요 병원까지 무급유 비행과 관내 임무 수행 중 재급유 없는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1500 l 이상 담수도 가능해 산불 진화에도 효율적 대처가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4일 224명 승진인사 단행

광주시는 21일 2021년 상반기 총 224명 규모의 직급별 승진인사 시행 등을 예고했다. 시는 오는 24일자로 승진자를 심의 결정한다. 4급 이상 전보인사는 오는 30일, 5급 이하 전보인사는 내년 1월 15일 발표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인원은 224명으로 4급에서 3급 승진은 행정 2명, 시설 1명 등 3명이다. 5급에서 4급 승진은 행정 7명(직무대리 2명 포함), 시설 4명이

다.

6급에서 5급 승진은 행정 20명, 세무 1명, 전산 2명, 사회복지 1명, 공업 2명(기계 1, 전기 1), 녹지 1명, 환경 1명, 시설 10명(토목 7, 건축 2, 지적 1), 환경연구관 1명, 수의 연구관 1명 등 40명이다. 6급 승진은 76명, 7급 승진은 62명, 8급 승진은 32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예 능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